



전북대병원, 신규간호사 1주년 Cheer-up 성료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이 인사 1주년을 맞은 신규간호사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그 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개최한 Cheer-up 행사를 성료했다. 전북대병원 간호부는 지난 20일 9시부터 17시까지 전북대병원 본관 지하층 모악홀과 완주 힐즈타운에서 '2022년 제1차 신규간호사 1주년 Cheer-up 행사'를 통해 1년 동안 각 부서에서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해온 신규간호사들을 격려했다. 유희철 병원장의 축사로 시작된 이번 행사에는 신은숙 간호부장의 격려사와 함께 빛나는 간호 영상이라는 테마로 각 부서에서 해당 부서의 신규간호사를 위해 제작한 부서별 응원 영상이 이어지며 행사에 참여한 직원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선사했다. 이어 전라북도 간호사회 인육회 회장의 '최신 간호·보건정책과 의료법' 특강과 소빈 작가의 '일어설 용기와 도전의 시간' 문화체험 코너도 진행됐다. 유희철 병원장은 "이번 행사가 환자중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온 신규간호사들에게 조금이나마 그 노력을 보상받을 수 있는 시간이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밝은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그리어스 이승재 대표, 전주대 발전기금 500만원 기탁

전주대학교는 23일 창업 릴레이 기부를 통해 친환경 포장 용기 제작기업인 그리어스 이승재 대표가 발전기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김재에 소재한 주식회사 그리어스는 종이와 녹말을 활용해 생분해 가능 포장 용기를 제작하는 기업으로, 전주대 창업지원단의 초기창업패키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육성됐다. 이승재 대표는 "전주대에서 창업에 대학이 보유한 다양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자리 잡을 수 있었다"며, "대학과 창업기업들의 동반성장을 통해 건강한 창업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창업 릴레이 기부에 참여하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진태 총장은 "최근 제조 기업들이 ESG 경영을 위한 친환경적 제품 개발에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어스의 친환경 포장 용기 제작이 다른 기업의 모범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회사와 같은 친환경 제품을 제작하는 창업기업들이 지속해서 배출되도록 교내 청년창업 활성화에 더욱 더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대 창업지원단은 올해 시작된 창업 릴레이 기부를 통해 3월 500만 원, 4월 600만 원 등 총 1,600만 원의 창업 릴레이 기부금이 조성됐다. /정은성 기자



남원시, 아이맘 행복누리센터 부모교육 진행

남원시 아이맘행복누리센터에서는 5월부터 12월까지 미취학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매월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은 영유아 가정에 자녀 양육기술을 습득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강한 부모역할과 가정 양육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개설하게 되었다. 지난 21일에는 비전대학교 평생교육원 이경자 교수가 영아의 사회적 발달과 부모의 역할에 대한 주제로 강의를 하였고 영아 부모에게 자녀의 사회적 발달과 양육에 있어 부모에게 필요한 유익한 내용을 전달하며 참여 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누리센터에서는 매월 2회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다양한 주제의 부모 교육과 힐링·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오는 6월 11일에는 2차 '유아의 사회적 발달과 부모의 역할'에 대한 주제로 강의를 할 계획이고, 6월 25일에는 부모회 '테라리움 만들기'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으로 건강한 나들이’

순창발효테마파크재단, 광주어린이집연합회 초청 전통장 문화학교 팸투어 실시

순창발효테마파크재단(이하 '재단')이 광주어린이집연합회 임원들과 교사 8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20일과 21일 2회에 걸쳐 팸투어를 진행했다. 재단은 이번 팸투어로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전통장 문화학교' 운영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농촌문화콘텐츠를 소개하고, 오는 6월 부분개관을 앞둔 발효테마파크 전시관을 안내하여 순창을 알렸다. 전통장 문화학교 홍보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팸투어에서 참가자들은 장류체험관에서 고추장을 활용한 요리체험을 즐기고, 순창의 랜드마크로 부상하고 있는 발효테마파크를 방문하여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했다. 아울러 발효테마파크와 순창시의 특별한 문화관광 연계프로그램을 체험하고 6월 초 오픈 예정인 어린이실 내놀이터, 어린이과학관, 미생물유지업, 다년생식물원에 대한 사전답사를 진행했다. 또한, 순창고추장인쇄마을에서 즐길 수 있는 장독대 옆 가든 집밥을 맛보고 최근 문을 연 강천힐링스파, 체계산 출렁다리 등을 방문했다. 재단은 이번 팸투어 운영을 통해 개선사항을 검토



보완하여 전통장 문화학교에 참여하는 방문객들의 건강하고 알찬 나들이 재미를 더할 예정이다. 한편, 발효테마파크는 발효를 테마로 한 교육, 체험, 놀이 공간으로 구성되어 순창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주요 방문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공간이다. 고추장 명인들이 집단으로 마을을 형성해 전통의 장맛을 계승하고 있는 고추장인쇄마을의 전통장류 문화체험과 연계되어 있어 과거와 현재, 미래 세대를 잇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북대 조동민 교수, 한국멀티미디어학회 학술상

전북대학교 조동민 교수(산업디자인학과)가 최근 부산에서 열린 2022 한국멀티미디어학회 춘계 학술발표대회에서 학술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조 교수는 지난해 박사과정인 사근(Shi Kun) 학생과 함께 발표한 'Research on the Components of Children's Educational Game Achievement System'라는 논문을 통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연구는 어린이 디지털 교육 게임(DEG: Digital Education Game)의 성취 시스템의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각 구성요소의 역할과 가치, 구성 요소간의 관계와 패턴을 설명한 것으로, 디자인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특히 조 교수는 예술대에서는 드물게 연구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보이며 주목을 받고 있다. /정은성 기자

JB 문화공간, 티소물리에 회원 초청 녹차 만들기 체험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이 후원하는 JB문화공간은 지난 22일 전남 보성군 백목다원에서 티소물리에 회원들을 초청해 녹차 만들기 체험을 실시했다. 티소물리에 프로그램은 JB문화공간 회원들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차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2020년부터 강화를 진행해 왔다. 이번 체험에서 티소물리에 수강생 27명은 백목다원에서 녹차 만들기과 녹차 차야 만들기 체험을 진행했다. 녹차 만들기 체험에 앞서 차나무의 특징과 효능, 찻잎 채취하는 방법 등에 대한 강의 후, 녹차밭에서 잎을 채취한 후, 체험장으로 이동해 그동안 이론으로만 공부했던 차를 직접 튀기고 비비고, 건조 시키는 만들기 과정을 진행하여 회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한 수강생은 "그동안 수업 시간에 좋은 차를 마시면서, 몸과 마음을 힐링하였는데, 이번 체험을 통해 차의 소중



함을 알게 되었고 직접 만든 녹차를 우려 마실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과재명 지도교수는 "수강생들이 여러 찻잎을 직접 따서 녹차를 만들다 보면 차밭 풍경에 취하고 녹차 향에 취해 절로 행복해진다"며 "앞으로 수강생들과 함께 다양한 차문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이미션 남원시의원 후보, 전기오토바이 유세 눈길

6.1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원시의원(바전구) 재선에 도전하는 이미션 후보가 전기오토바이로 유세활동을 펼치며 시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이미션 후보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좁고 골목이 많아 주차하기 힘든 지역 도로상황을 고려해 소형 전기오토바이를 유세차로 골랐는데, 느리더라도 지역 곳곳을 누비면서 주민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유세를 할 수 있어 좋았다"며, "시민을 위한 올곧은 시의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새로운 비전과 정책으로 길을 내는 의원이 되겠다"라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부탁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무주군, 문화예술인 생생마을 살아가기 '눈길'

무주군이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인 생생마을 살아가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대상 문화예술인들의 재능기부가 이어져 훈훈함을 주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지난 20일에는 단풍마을로사영농조합법인(대표 임지혜)에서 거주 중인 문화예술인들이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영정사진 촬영을 진행해 호응을 얻었다. 이외에도 총 4팀 8명의 문화예술인들이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영정그림그리기와 사진 촬영, 무주풍경사진 전시, 마을별화그리기 등을 진행하고 있다. 송현자 씨(69세, 대전)는 "예술가로서 그동안은 도시에서 치열하게 살다가 이제는 한적한 곳에서 활동을 하고 싶어 알아보다가 무주를 알게 됐다"라며 "마침 좋은 취지의 사업 지원을 받으면서 지역과 주민을 위해 재능기부도 할 수 있어 보람있다"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문화예술인 생생마을 살아가기 사업은 문화예술인들에게 숙박비와 창작비, 활동 재료비 등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군에서는 올해는 총 4팀 8명에게 3천만 원을 지원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남원시, 2022 새일 미니 채용박람회 개최

남원시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23일 여성 구직자 및 직업교육훈련생을 대상으로 미니 채용박람회를 개최했다. 다시 일하는 기쁨을 이라는 슬로건으로 기획된 이번 행사는 현장면접을 위한 기업 채용부스, 구직상담 및 이력서 컨설팅, 이력서 사진촬영을 위한 취업지원부스, 새일센터 및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홍보부스 등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구직자의 실질적인 취업을 위해 남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협력해 동북노인복지센터 등 5개 구인 업체를 발굴하였으며, 현장에서 일자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인사담당자가 참여하는 현장면접을 진행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감염취약시설 방역담당자 간담회 실시

남원시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에 따라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감염취약시설 감염병 관리를 위해 20일 보건소 보건교육실에서 감염취약시설 방역담당자와 간담회를 실시했다. 간담회는 감염취약시설 등 33개소 방역관리자 및 감염비상대응협의체 구성위원이 참여했으며, 전라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이주영교수를 초빙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 또한 지금까지 남원시의 코로나19 발생현황과 감염병 대응 및 감염병비상대응협의체에서 진행한 요양시설 감염병 위기 대응 컨설팅 사례공유로 확진자 발생시 대처방안의 매뉴얼을 수립할 수 있는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남원시보건소장 이명경감염병대응계장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고위험시설과의 정보공유를 통해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방역 대응체계를 구축해 감염취약시설의 관리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혁신동 자전거동호회, 기지제 둘레길 라이딩 행사

전주시 혁신동 자전거동호회(회장 강귀례)는 지난 21일 회원 15명이 참가한 가운데 라이딩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라이딩은 혁신동 주민센터를 출발해 기지제를 거쳐 한곡농수산대학을 돌아오는 왕복 5km 코스로 동호회 회원들 모두 라이딩을 즐기며 자연의 정취를 만끽했다. 특히 라이딩에 참가한 동호회원 전원이 헬멧 등 안전장비를 착용해 부상자 없이 안전하게 행사가 마무리됐다. 라이딩에 참가한 전주시의회 송영진 의원은 "자전거 이용은 건강을 위한 운동수단이자,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교통수단"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전용도로가 더욱 확대돼 남녀노소 누구나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 전주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혁신동 자전거동호회는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며 자전거를 사랑하는 사람들로 구성돼 있으며,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동호회에 가입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유해환경업소 정화활동

대한청소년보호선도회(회장 임종근)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지난 20일 전북대 주변을 중심으로 유해환경 추방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선도위원들은 2개조로 나뉘어 청소년 유해환경 업소를 방문해 홍보와 계도활동을 진행했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현장순찰활동을 통해 각 업소가 자율적으로 정화하도록 제도하고 있으며, 미개선 시 해당기관에 행정고발하게 된다. 임종근 감시단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추방 운동에 미력하나 참여하게 되어 선도위원과 보람을 갖고 봉사하고 있다"며 "향후 청소년 범죄예방과 기술·기능을 통한 사회적응 훈련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계도활동을 아간에도 진행하고 있어 감시단원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김윤상 기자